

# 어드릭의 『비둘기 재앙』에 제시된 부족 정의와 역사적 정의: 회복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진만

(영남대학교 부교수)

## ◆ 국문초록

이 글은 루이스 어드릭의 『비둘기 재앙』이 오지브웨족이 겪은 식민주의 역사와 관련해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 글은 이 소설이 사법적 차원뿐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주요 모티프로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고 논의한다. 이 논의를 위해, 우선 이 글은 아니시나아베 부족 정의의 근간으로서 '미노-비마디지원(좋은 삶)'이라는 아니시나아베 전통의 사유를 참조하면서, 이 부족 정의가 오지브웨 부족 판사 쿠츠의 조정법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핀다. 둘째, 이 글은 이 소설이 오랫동안 오인된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북미원주민에 대한 백인들의 집단적 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기억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밝힌다. 『비둘기 재앙』은 회복적 정의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원주민의 주권 회복, 치유, 끈질긴 생존의 비전을 그린다 할 수 있다.

주제어 : 어드릭, 『비둘기 재앙』, 회복적 정의, 미노-비마디지원, 역사적 정의

## I. 서론

1897년 11월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노스다코타 주 에몬스(Emmons) 카운티 소재 윌리엄스포트(Williamsport) 감옥에서 세 명의 원주민 수감

자들, 즉 폴 홀리 트랙(Paul Holy Track), 알렉스 캐도트(Alex Cadotte), 필립 아일랜드(Philip Ireland)를 감옥에서 끌어낸 후 소를 도축해 매다는 권양기에 목매달아 죽인다. 한 백인 가족 살해의 용의자였던 캐도트가 재심을 받도록 승인되자,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세 명 모두 석방될 것을 염려한 무리가 이들을 죽인 것이다(Hilleary 2018). 당시 겨우 19세에 불과했던 폴 홀리 트랙은 루이스 어드릭(Louise Erdrich)의 『비둘기 재앙』(*The Plague of Doves*) 속 1911년 린치 사건의 희생자 홀리 트랙(Holy Track)으로 등장해 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노스다코타 주 플루토(Pluto)라는 가상의 지역에서 발생한 이 린치 사건 역시 실제 사건처럼 한 백인 농가 가족 살해범으로 몰린 원주민 세 명-홀리 트랙, 커스버트 피스(Cuthbert Peace), 아시지낙(Asiginak)-이 백인 폭도들에게 교살당해 죽으며, 이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무شم(Mooshum)이 노인 이 되어 당시 사건을 기억해 외손녀 에블리나 하프(Evelina Harp)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드릭은 『비둘기 재앙』 출판 후, 인터뷰에서 “린치 폭도 중 그 누구도 기소된 적이 없었다”(Baenen 2008)고 언급하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이 역사적 불의를 다룬 『비둘기 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원주민 후손들이 여전히 겪고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감추지 않는다: “이 책은 한 공동체가 정의의 부재를 받아들여 견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어떤 정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Goodman 2008).

그러면서도 어드릭은 결국 후손들이 린치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가 뒤섞여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었고 모두가 그 속에 존재한다고 언급한다(Goodman 2008). 어드릭의 이 언급에 대해 김형희는 『라운드 하우스』(*The Round House*)에 비해 『비둘기 재앙』에서의 어드릭이 정의의 성취에 대해 주저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논의한다(Kim 2019:233). 독일계 부친과 오지브웨 원주민 모친 사이에 태어난 어드릭처럼 『비둘기 재앙』의 혼혈인 에블리나가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 존재의 봄날에

죄와 희생이 뒤섞여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매듭이 없다”(Erdrich 2008:243)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일견 어드릭이 정의의 성취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이 일리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은 『비둘기 재앙』에서의 어드릭이 정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이라는 해석에 대해 재고해보려 한다. 어드릭은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1897년 린치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해왔다고 밝힌다. 특히 어드릭은 헨슨(Hansen 2008)과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권양기에 매달려 죽은 사진을 인터넷에서 접한 것이 “마음속에서 끔찍하게 괴로웠던 일”이라 말하며 원주민들에 대한 그 집단적 폭력이 기억에 깊이 새겨졌음을 고백한다. 이는 어드릭이 원주민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외상적인 역사에 대해 기억하려는 역사의식을 내비치는 것일 수 있다. 어드릭이 굿맨(Goodman 2008)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도 그녀가 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다 알게 되었으며 평소 오래된 신문들을 읽으며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의 역사를 사랑한다고 한 언급은 그녀가 얼마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오지브웨 부족의 식민주의적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그녀가 정의가 부재했던 역사 앞에서 그 정의 회복의 문제를 다루는 데 모호하거나 꺼리는 태도를 견지하고 정의를 성취해낼 수 없는 것으로 그리려 했다는 해석은 수용되기 쉽다. 앞서 인용한 어드릭의 언급, 즉 “이 책은 정의의 부재를 받아들여 견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어떤 정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Goodman 2008)는 언급은 그 어떤 정의도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지 앞으로 그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다루어 평가하고 싶었다”(Baenen 2008)는 저자의 언급은 정의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혹은 비전에 대한 그녀의 암시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어드릭이 『비둘기 재앙』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세심하고도 열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논의한다. 그녀가 염두에 두는 이 정의는 단순히 ‘옹보적 정

의’(retributive justice)가 아닌 ‘회복적 정의’(reparative justice)의 차원이며, 이 정의는 사법적이고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제시되기에 그녀가 정의의 회복을 다루는 문학적 방식은 복합적이며 정교하다. 이 글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안톤 바질 쿠츠(Antone Bazil Coutts) 판사의 부족 정의(tribal justice), 그리고 이 서론에서 제기한 역사적 정의를 어드릭이 회복적 차원에서 그린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에 대한 어드릭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보려 한다. 이 연구는 사법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어드릭이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규명할 뿐 아니라,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을 포함한 북미원주민 공동체 모두가 불의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작품이 물음과 동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혀줄 것이다.

## II. 부족 판사 쿠츠의 조정법정과 회복적 정의

어드릭이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 어떻게 다루었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필자는 『비둘기 재앙』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부분으로서 부족판사 쿠츠의 사법적 정의 추구에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 오지브웨 보호구역 판사로서 현대 부족법을 주재하는 그가 “부족 정의”(Erdrich 2008:209)로서의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정의에 어떻게 호소하는지 살펴본다면, 어드릭과 더불어 오지브웨 공동체가 회복적 정의를 소중히 여기고 실현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쿠츠의 사법적 정의 추구 방식이 다음 절에서 다루는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도록 재현된 점을 파악한다면, 어드릭이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작품 속에서 판사 쿠츠는 ‘조정법정’(peacemaking court) 혹은 ‘조정자법정’(peacemaker court)을 통해 코윈 피스(Corwin Peace)의 범죄를

다룬다. 매슈 플레처(Fletcher 2017:104)에 따르면, 이 조정법정은 아니시나아베 사람들 가운데 오타와족과 칩페와족(오지브웨족)의 그랜드 트래버스 밴드(the Grand Traverse Band of Ottawa and Chippewa Indians)가 처음 채택한 사법체계이다. 이 체계는 주로 청소년 범죄자들, 비폭력 범죄자들을 수감처럼 징벌적이고 응보적인 형사처벌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국 주류의 당사자주의적 분쟁-원고와 피고가 적대관계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부터 전통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개선과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머스크랫 댐 퍼스트 네이션(Muskkrat Dam First Nation)의 한 원로가 1994년에 언급한 것을 플레처가 인용한 바에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아니시나아베 사람들]는 문제의 근원, 혼란이 초래된 근원을 파악하려 모든 노력을 다했다. 우리는 파악된 것에 기초해 일에 연루된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Fletcher 2017:95에서 재인용). 따라서 플레처는 범죄에 대해 아니시나아베 공동체가 취하는 반응이 바로 미노-비마디지윈<sup>1)</sup>의 핵심에 호소하는 것이며 이런 정의는 당사자주의적이고 응보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회복적인 정의라고 강조한다.

쿠츠의 조정법정도 성격상 처벌 위주의 응보적 정의에 기초하지도 당사자주의적 체계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그는 범죄자를 피해자와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 이재영(2014)에 따르면,

---

1) 이 글에서 곧 다시 논의될 이 ‘미노-비마디지윈’(mino-bimaadziwin)은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승해온 사고관 혹은 개념이며, ‘좋은 삶’으로 번역된다. 플레처(2017:95)는 자신의 글에서 “미노-비마디지윈”(mino-bimaadziwin)으로 표기한다. 이 어휘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 mino-bimadziwin, mino-bimaudiziwin, mino-bimaatisiwin, mino-pimatiseewin, mino-pimaatiziwin, mino-pimatisiwin, mino-pimadizewin, mino-pimadaziwin, mino-mnaamodzawin.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미노-비마디지윈’(mino-bimaadziwin)으로 통일해 표기하기로 한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의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쿠츠 판사가 코윈의 범죄를 다룰 때 어떻게 이런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조정법정을 주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조정법정이 아니시나아베의 사법적 전통의 근간인 ‘미노-비마디지윈’(Mino-bimaadiziwin)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 아니시나아베 공동체가 취하는 반응은 바로 미노-비마디지윈의 핵심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플레처의 위 언급처럼, 쿠츠의 회복적 정의 추구도 바로 이 개념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아니시나아베 언어로 ‘미노-비마디지윈’은 ‘좋은 삶’(the good life)을 의미한다(Fletcher 2017:90-91, LaDuke 1999:4, Rheault 1999:68-69, Debassige 2010:13). 즉, 이것은 “좋은 삶을 영위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리는 것”(Fletcher 2017:91), 혹은 “세상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사는 것”(McGregor 2018:10)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균형 잡힌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대상—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뿐 아니라, 자신이 그 주변과 마치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알고 공동체와 유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Fletcher 2017:91). 만일 누군가가 상대방이나 사람 아닌 다른 대상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균형이 무너져 정의롭지 못하고 위험한 세상이 초래된다(McGregor 2018:12-13).

좋은 삶, 균형 잡힌 삶, 자신을 둘러싼 대상에 대한 존경과 유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이 미노-비마디지윈 개념은 아니시나아베 사람들

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존재론적, 인식론적 세계관으로서 인간, 자연, 우주에 대한 이들의 이해 방식이다. 이 사유는 이들의 삶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야의 사고, 즉 철학적, 정치적, 사법적, 교육적, 문화적, 종교적, 생태적 사고와 행위규범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신성한 법이자 최고의 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유는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는 정의의 차원에서 보면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의 부족법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주면서,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는 정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플레처(2017:95)에 따르면, 현재에도 아니시나아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의가 갱생도모하고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치유의 문제라고 여긴다. 또한 드보라 맥그리저(2018:10)는 이 개념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대상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윤리적 행위규범의 근간으로서 검토될 수 있으며 조정과 화해 같은 삶의 목적은 바로 이 개념을 성취하는 길로 간주된다고 언급한다. 이런 점에서 미노-비마디지원에 기초한 사법적 사고는 대립이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화해와 조정을 유도해 대상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법적 차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여 쫓겨나게 하는 응보적 차원도 물론 정의이지만, 가해자의 사죄, 피해자의 용서, 그에 따른 양자의 화해,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의 피해자의 상처 회복, 더불어 가해자도 사회에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차원도 매우 중요한 정의이다. 이 회복적 차원은 범죄 발생과 혼란의 근원을 찾아 해소하려 하므로 미노-비마디지원의 정신, 즉 ‘좋은 삶’, ‘균형 잡힌 삶’을 도모하며, 범죄자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을 배우고 공동체와 유대의 끈을 갖게 함으로써 갱생과 회복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비둘기 재앙』에서 구체적으로 미노-비마디지원 정신을 계승하면서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현대부족의 사법적 정의는 쿠츠에게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는 샤멩과(Shamengwa)의 바이올린을 훔친 청

소년 범죄자 코윈을 서구세계의 당사자주의적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부족 정의’에 입각해 가해자/피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찾는 조정법정을 마련한다.

나는 선고를 내릴 때 상당히 자유롭다. 그[코윈 피스]가 구제 불가능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지만 나는 코윈이 그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비범한 점에 관심이 끌렸다. 난 그의 선조들, 즉 피스 형제인 앙리와 라파예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잠재된 재능이 있었던 듯하다. 또 어쩌면 이 형제가 내 할아버지를 구했기 때문에 난 이들의 후손을 구해줄 운명이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종류의 분규는 그저 부족 정의에 속하는 것이었다. 난 선고를 내리는데 부족 기반의 전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내 특권을 활용하고 선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우선, 샤멩과에게 내 결정을 관철시켰다. 그런 후 난 코윈에게 그 오래된 거장의 제자가 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일주일여 옛새, 아침에 세 시간 씩. 일과 후 초저녁 시간에 세 시간의 연습. 그는 바이올린을 켜는 법을 배우는 것이거나 복역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 난 누가 벌을 받는 것인지, 그 소년인지 노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집에서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Erdrich 2004:209, 필자의 강조)

여기에서 쿠츠가 말하는 ‘부족 정의’는 바로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법적 정의, 즉 미노-비마디지원을 의미한다. 쿠츠 판사는 이 부족 정의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 코윈과 피해자인 샤멩과를 화해시키고 조정해주며, 코윈이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자는 쿠츠 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시키려는 의도를 피해자인 샤멩과에게 설명해 승낙을 구하며, 범죄자 코윈은 샤멩과에게 자신이 바이올린을 훔친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마침내 샤멩과는 그를 용서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다. 쿠츠 판사가 코윈에게 샤멩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라는 ‘형벌’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무조건 응모적 차원에서 그를 처벌하기보다,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살려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쿠츠 판사의 “형벌” 선고는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형벌이자 “구제”이다. 쿠츠의 조정법정 덕분에 코윈이 그토록 원하던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부족 공동체 마을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게 함으로써 기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좋은 삶, 미노-비마디지윈이 된다.

코윈은 부모의 범죄와 알코올 중독이라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으로서 비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쿠츠 판사는 그를 구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코윈은 내가 보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나는 그의 태생에 대해 진정 알아야 할 것 이상으로 더 알고 있었다. 그가 잘 되면 그건 기적이라 생각했다. 그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나쁜 녀석이었다. 실수로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구하려 노력하는 그런 녀석이었다.* 어떤 이들은 여하간 그를 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반사회적 인간. 경계 역 인격 환자. 교묘하게 남을 속이던 그는 학교를 그만둔 후 줄곧 위험한 마약에 빠졌다. 다른 이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행동을 그의 아버지가 지은 굉장한 범죄나 그 후 생긴 어머니의 음주벽 탓으로 돌렸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봤다고 여겼다[...]. (Erdrich 2008:197-198, 필자의 강조)

앞에서 언급했듯이, 쿠츠 판사의 조정법정의 노력 덕분에 코윈은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순회 음악단에서 부족 공동체에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 마약상 등으로 부족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 전체의 삶의 균형을 파괴하여 나쁜 삶을 초래했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부족에 이바지하게 되는 모습 속에서 독자는 미노-비마디지윈, 즉 좋은 삶과 균형 잡힌 삶을 따라야 한다는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의 오래된 정신을 발견한다. 또한 독자는 이런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쿠츠의 조

정법정이 분명 코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다. 쿠츠 판사 덕분에, 코윈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배우고, 피해자 샤멩과로부터 교습을 받는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이 더는 불우한 외톨이가 아니라는 감정과 생각을 품을 수 있다. 즉 그는 공동체와의 연대의식 속에서 소외감을 치유하며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 혹은 범죄자로서의 코윈과 피해자로서의 부족민들(샤멩과를 포함)의 흐트러지고 깨어진 관계는 조정법정을 통한 쿠츠 판사의 노력 덕분에 마침내 재정립되고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결국 회복적 정의는 쿠츠 판사의 표현대로 ‘부족 정의’-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의 미노-비마디지 윈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쿠츠와 더불어 어드릭을 포함한 오지브웨 공동체가 회복적 정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가늠케 한다.

### III. 기억을 통한 역사적 정의의 회복으로서의 회복적 정의

오너 배키너(Bakiner 2015:149)에 따르면, ‘역사적 정의’(historical justice)는 과거의 위법 행위들로 빚어진 현재의 배제와 박탈을 규명하고 고치며, 그런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형사적 책임까지 정하려는 공정함의 사고에 따라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자격과 권리를 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사적 정의는 과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고쳐 진실을 회복시키고 역사적 과오로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려는 것을 포함하므로,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정의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정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 앞서 언급한 쿠츠의 부족 정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역사적 정의와도 맞물린다 할 수 있다. 쿠츠 덕분에 코윈이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바이올린 연주 때문에 최초의 살인장면(로크렌 일가족 살해사건)의 진범인 워런 월데(Warren Wolde)가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 코윈의 바이올린 연주는 워런이 자신

의 범행 현장이었던 로크렌 집의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던 바이올린 소리를 떠올리게 했고, 그 때문에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쿠틀의 부족 정의 추구가 과거 살해 장면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부족 정의 추구는 역사적 정의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도 된다. 배키너(2015:147)는 “과거의 폭력과 위반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오인”을 드러내는 것도 역사적 정의의 추구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코델리아 로크렌(Cordelia Lochren)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범인들이 린치당해 죽었던 원주민들이라고 한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부족 정의 추구의 성과인 코윈의 바이올린 연주가 진범을 드러나게 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적 정의를 회복시켜준 셈이다.

또 다른 맥락에서, 쿠틀의 부족 정의 추구는 역사적 정의의 회복에 기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윈은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 어찌 보면 코윈은 과거의 홀리 트랙처럼 고통받거나 소외된 다수의 북미원주민 청소년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들과 집단의 지위는 흔히 과거의 불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배키너(2015:148)의 지적을 고려하면, 코윈의 불행의 씨앗은 바로 자신의 선조 커스버트 피스를 린치로 죽게 한 식민주의의 억압, 차별, 폭력의 역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조인 커스버트 피스가 린치를 당해 죽은 식민주의의 폭력과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과거의 불의와 과오들이 이후 세대인 코윈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윈이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삶-‘좋은 삶’으로서의 미노-비마디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쿠틀이 도와주는 것은 역사적 정의이자 회복적 정의라 할 수 있다.

## 1. 니브 하프(Neve Harp)의 기억하기를 통한 코델리아 로크 렌과 부족민의 관계 회복

이제 필자는 역사적 정의가 중요한 정도로 기억의 의무와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런 점은 어드릭이 『비둘기 재앙』에서 독자들이 주목하길 원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논의하려 한다. 제프리 블러스타인(Blustein 2015:75)은 과거의 불의와 잘못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그 상흔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며 그런 까닭에 기억은 그 자체로도 덕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불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고통을 누그러뜨리며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사적 정의 추구에 기억은 선결요건이 된다.

작품 속에서 기억의 의무와 윤리를 통해 역사적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은 니브 하프와 코델리아의 관계에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키너(2015:147)에 따르면, “과거의 폭력과 위반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오인”을 드러내는 것도 역사적 정의의 추구에 포함된다. 『비둘기 재앙』에서 최초 장면 살인범에 대한 코델리아의 오해는 니브에 의해 바로 잡힌다. 에블리나의 고모이며 플루토 타운의 역사협회(Pluto's historical society) 회계 담당인 니브는 역사협회 소식지에 기사를 작성하면서 지역 역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녀는 소식지를 통해 사람들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부족 원로인 무슴과 사멩과를 방문해 이들의 과거 기억을 듣고 기록한다. 그런 그녀가 로크렌가 살해사건의 진범에 대해 코델리아-그 살해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코델리아는 작품의 말미까지 자신의 가족 살해범이 1911년 린치 사건으로 목매달려 죽었던 원주민들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던 니브는 그 범인이 워런임을 알려준다. 코델리아의 서술에 따르면, “오직 한가지, 난 린치당한 인디언들이 책임져야 할 장본인이라 믿었다. 난 니브 하프가 내 생각을 바로잡아 줄 때까지-실제로 그

너가 모아놓은 기사들을 모두 나한테 보여주었을 때까지-난 그렇게 믿었다”(Erdrich 2008:307). 오랫동안 코텔리아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다르지 않으며, 그런 오해를 니브가 수정해주는 것은 역사적 정의의 한 부분이다.

마거릿 어번 워커(Walker 2015:131, 원문 강조)에 따르면, “심각한 과오에 대한 진실을 찾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치유와 회복의 조건이다. 어떤 위반에 대한 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은 그 위반을 수정하기 위해서, 즉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sup>2)</sup> 『비둘기 재앙』에서 의사인 코텔리아는 니브가 오인을 바로잡아주기 전까지 부족민들을 진료하길 거부하는 차별적 행위를 해왔다. 그녀의 차별적 행위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이며 인종적 차원에서 이들이 오랫동안 경험해온 식민주의적 역사의 불의를 의미한다. 코텔리아도 상처가 있다. “사실 그녀는 원주민들 앞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나약함을 경험했다”(Erdrich 2008:298)는 서술에서 드러나듯이, 그녀가 원주민들을 진료하길 거부하는 것은 그와 같은 원주민들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오인에서 비롯된 중요성과 공포심 때문이다. 가족이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은 그녀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를 남겼기에, 그녀는 원주민들과 마주하여 그 외상이 다시 환기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와 부족 공동체의 망가졌던 관계는 기억하고자 하는 니브의 의지 덕분에 과거와 달리 회복될 수 있다.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린치를 당하고 죽은 원주민들의 후손들은 코텔리아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더는 받지 않을 것이며, 코텔리아도 그동안 시달렸던 공포심, 즉 오인에 기인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부족민들을 마주해 평정심을 되찾으며 치유

2) 이외에도 워커(2015:132-134)는 「진실 말하기가 어떻게 회복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여러 곳에서 진실 말하기와 회복의 깊은 연관성을 반복해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배키너(2015:147)도 진실규명 위원회들(truth commissions)이 과거의 폭력이나 위반들에 대해 널리 퍼진 오인들을 밝히는 것도 역사적 정의 추구에 포함된다고 언급한다.

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텔리아와 부족민의 어긋난 관계는 역사적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회복되어 균형이 잡히고 좋은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던 아니시나아베의 미노-비마디지윈, 즉 좋은 삶의 가능성이 이런 재현들 속에서 드러나고, 따라서 독자는 회복적 정의를 찾을 수 있다.

기억하기를 통한 역사적 진실의 드러남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이 소설에서 시선을 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소설이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쓰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 속의 ‘바이올린’이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귀환의 플롯을 띤다는 점이다. 소설의 형식과 플롯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는 모두 억압된 진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앞서 언급한 역사적 진실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주제와 긴밀하게 맞물린다.

우선 추리소설의 형식을 들여다보면, 이 소설은 로크렌 집안의 가족들이 아기(코텔리아)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살해당하는 살인장면으로 시작된다. 독자는 이 살인의 진범이 누구일까 추리를 해가며 작품을 읽게 되고 억울하게 살해범으로 몰린 원주민들이 집단 린치로 목매달려 죽게 되는 끔찍한 장면을 또다시 목격한다. 최초의 장면의 살인범이 토벡 헤스(Tobek Hess)일 수도 있다는 독자의 의심은 소설의 말미에서 결국 오인인 것으로 드러난다. 기억을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 기록자 니브 덕분에 워런이 살해의 진범임이 밝혀짐으로써, 이 소설은 진실을 드러내는 추리소설의 형식을 통해 억압된 진실의 귀환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바이올린과 연관된 플롯을 보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바이올린은 오랜 시간을 거쳐 자신의 원소유주의 후손을 찾아감으로써 마치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데를 스스로 기억하는 생명체 혹은 행위자(agent) 처럼 그려진다. 쿠츠 판사의 서술에 따르면, 이 악기는 본래 앙리 피스(Henri Pease)의 부친의 소유였는데, 결국 샤멩과의 손을 거쳐 피스 집안의 후손인 코원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코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선조이며 린치 사건의 희생자였던 커스버트가

당한 불의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바퀴 말해서, 린치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 코윈의 선조이기도 한 커스버트 피스였다는 점, 그리고 그런 식민주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외된 코윈에게 선조의 바이올린이 돌아오는 점, 그리고 그 바이올린 덕분에 코윈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코윈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 때문에 최초의 살인장면의 진범(워런)이 드러나고 죽으면서 선조 커스버트가 당한 불의와 불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쿠츠의 조정법정 덕분에 코윈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 부족민에게 기쁨을 선사하며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 바이올린 속에서 발견되는 한 편지는 이 악기의 역사를 들려준다. 앙리 피스가 동생인 라파예트(Lafayette)에게 남긴 이 편지는 바이올린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역사에 대한 “기억”을 상징한다. 편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이올린은 재스프린 신부(Father Jasprine)가 자신의 복사였던 앙리 피스의 부친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이 부친은 세상을 뜰 무렵 바이올린을 두 아들(앙리와 라파예트)에게 남기면서, 카누 시합을 통해 주인을 가릴 것을 당부했다. 카누 경기 중 폭풍으로 인해 라파예트가 죽게 되고, 앙리는 이 악기를 자신이 연주할 수 없게 되면 카누에 넣어 라파예트가 있는 영혼의 세계로 다시 되돌려 보내줬노라는 메시지를 바이올린 속에 남긴다. 신비로운 점은 이 편지가 작성된 날짜가 1888년 8월 20일이며, 샤멩과의 꿈속에 이 바이올린이 나타나 말을 걸며 호숫가로 그를 불러낸 것은 그로부터 대략 20년 뒤였다는 사실이다. 약 1908년쯤에 샤멩과는 이 악기를 입수해 연주했으며, 후에 그는 코인 피스에 의해 다시 이 악기를 도난당한 것이다.<sup>3)</sup>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

3)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돌고 도는 바이올린은 그 속에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점에서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도난당한 편지」 속 잃어버린 편지를 연상시킨다. 자크 라캉(Lacan 1972:72)은 포의 작품을 읽으면서 주체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잃어버린 “편지가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강조한다. 라캉의 분석에서 이 편지는 억압된 것이 반드시 귀환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무의식

악기는 살아있는 독립된 생명체처럼 스스로가 본래의 주인을 기억해 후손을 찾아간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카누와 바이올린은 한 인간이자 대리자였던 샤멩과를 거쳐 피스 집안의 후손을 마침내 찾아냈다. 그 바이올린은 오랫동안 코원을 찾아다녔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Erdrich 2008:216, 필자의 강조). 결국 이 바이올린은 상당히 오랜 시간 호수에 머문 후 샤멩과의 손을 거쳐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기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며, 억압된 진실로의 귀환이라 할 수 있다. 쿠츠의 서술을 통해 부각이 되는 이 귀환의 플롯은 어떤 진실이 비록 일시적으로 억압되더라도 끈질긴 “기억” 때문에 결국 드러나거나 또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곧 역사적 정의이자 회복적 정의라는 이 소설의 주제와 맞닿는다.

## 2. 역사적 정의를 위한 홀리 트랙 린치사건 기억의 윤리

앞서 언급했듯이, 『비둘기 재앙』에 제시된 1911년 린치 사건은 1897년에 발생한 폴 홀리 트랙 린치 사건을 모델로 한다. 이 역사적 사건, 그리고 작품 속에 재현된 사건 모두는 식민주의의 역사, 즉 식민주의의 폭력이 여실히 드러난 외상적 역사이다. 작품 속에서 니브의 서술에 따르면, 1911년의 린치 폭력은 “그 당시에는 소위 ‘비합법적 정의’라고 일컬어졌던, 수치스러운 일의 일부”(Erdrich 2008:297)였다. 이 ‘비합법적 정의’(rough justice)란 합법적인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공정한 처리방식과 가혹한 폭력을 동원하는 처벌방식을 의미한다. 1897년의 사건에서는 폭도들에 의해 세 명의 원주민 수감자가 감옥에서 끌려 나와 목숨을 잃었고, 『비둘기 재앙』에서는 보안관 펠스(Fells)가 세 명의 원주민 용의자들을 감옥에 데려가려 했지만, 마을의 백인 무리가 그 법적

---

의 기표로서 강조된다(양석원 2018:63, 72). 이런 점은 필자가 이 소설에서 초점을 맞추는 억압된 것의 귀환, 억압된 진실의 귀환, 혹은 기원으로의 회귀의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처리 과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들을 목매달아 죽인다. 실제 역사와 소설 속 백인 무리는 모두 ‘비합법적 정의’가 법을 잔인한 폭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주로 19세기 중반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린치에 관해 연구한 역사학자 마이클 파이퍼(Pfeifer 2011:46)에 따르면, 특히 “19세기 중반 중서부와 서부 변방에서의 집단적인 인종적 폭력은 북미원주민들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인종적이고 문화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시도들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백인들이 서부로 영토를 팽창해 농부들과 삼림노동자들이 점점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 자원을 놓고 원주민들과 충돌할 때, 백인들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집단적 폭력을 자주 동원했다(Peifer 2011:46-47). 그런데 그에 따르면 이 불법적 행위 앞에서 당국은 일반적으로 범법자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Peifer 2011:50). 이것은 1897년 린치 사건에서 폭도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어드릭의 언급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맥락이다. 파이퍼(2011:48)는 이 린치폭력이 원주민들은 자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백인 정착자들이 땅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에 불과하다 여기는 농경주의적 공화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고 논의한다. 이처럼 원주민들을 땅과 유대가 없는 야만인으로 간주해 이들의 땅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던 백인 정착자들은 북미대륙을 지배할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법 밖에서 억압하며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식민주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작품 속의 인물들, 예컨대 무슴, 에블리나가 이 역사를 “기억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기억의 윤리를 보여준다. 홀리 트랙 린치 사건이 일어났던 플루토 지역에 무슴을 따라 방문한 에블리나는 린치 사건 당시 원주민들이 목매달려 죽은 나무에 홀리 트랙의 부츠를 걸어두며 추모하고 애도하는 무슴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건 정의 대신에 감상이군요”(Erdrich 2008:253). 김형희(2019:234)는 이 부분을 예로 들면서 어드릭이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역사에서 정의가 수

립되는 사회를 그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에블리나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숨이 린치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려고 이들이 목매달려 죽은 장소에 에블리나를 데려오자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난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나무의 소재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Erdrich 2008:253). 이것은 이 지역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에블리나가 늘 역사의 상처를 잊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에블리나는 무숨으로부터 1911년에 있었던 피의 역사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빠짐없이 기억하려 한다. “난 가능한 한 기억할 수 있는 무숨의 이야기를 모두 적어 두었다. 그리고서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인척들—부모들, 조부모들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시간대까지 모두 다 적어 두었다”(Erdrich 2008:86). 여기에서 에블리나는 무숨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 끈덕지게 조름으로써”(Erdrich 2008:86) 과거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그녀의 강렬한 의지와 진지한 역사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독자는 이런 에블리나에게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드릭은 빌 모이어스(Moyers 2010)와의 인터뷰에서 기억이 북미원주민들에게 갖는 중요성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전부다”라고 확인한다. 시마 쿠릅(Kurup 2015:16)도 구전전통 속의 오지브웨 원주민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식민주의로 점철된 역사와 그것의 영향을 전해주는 데에는 기억이 매우 중요했고 오지브웨 전통 안에 있는 어드릭 역시 자신의 문학적 토대로서 기억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에블리나가 명백하게 과거의 불의에 대해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 그녀뿐 아니라 어드릭의 기억의 윤리이며, 그것은 블러스타인의 논의처럼 역사적 정의 혹은 회복적 정의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건 정의 대신에 감상이군요”라는 에블리나의 언급은 정의가 부재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독자에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해 그것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어드릭의 메시

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에블리나에게 과거의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숨이 역사와 기억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루이 리엘(Louis Riel)이 1885년에 원주민과 메이티인-원주민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혼혈-을 이끌고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임시정부를 선포한 후 캐나다 정부에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바토시(Batoche) 전투를 캐시디 신부(Father Cassidy)가 “반역”(Erdrich 2008:32)으로 간주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무숨은 그것이 원주민들이 주권을 인정받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게 정당하게 요구했던 역사적 사건임을 성토했다. 여기에서 무숨은 캐시디 신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맞서 정의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캐시디 신부, 당신은 우리 역사에 대해 알고 있소?”(Erdrich 2008:32)라고 따져 묻거나, “리엘, 만일 그가 승리했다라면 정의는 살아 있을 텐데!”(Erdrich 2008:38)라고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에서 독자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식민주의적 억압에 저항해 “원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존중”(Erdrich 2008:34)을 간절히 바라며 투쟁했던 선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에블리나 같은 미래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의지, 즉 기억의 의지일 것이다.

에블리나와 무숨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이런 기억의 윤리는 “역사적 과오의 회복으로서의 정의”(Thompson 2015:46)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억은 역사적 정의의 선결조건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쿠츠 판사가 역사적으로 자신의 선조(쿠츠의 조부)가 피스 형제에게 졌던 빛과 은혜를 기억하며 값은 차원에서 코원을 도와주었던 것도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키너(2015:149)가 논의하듯이, 물질적이거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들을 기억해 그것을 되돌려 주어 회복시켜주는 것도 역사적 정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김형희(2019:233)는 어드릭이 『비둘기 재앙』에서 정의를 다루는 데 있어 꺼리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고 간주한다. 그리

고 그 근거로서 린치 폭력사태와 관련해 가해자/피해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인물들의 피가 후손들 사이에 뒤섞이도록 그려진 것을 예로 든다. 그가 주목하듯이, 예컨대 린치 사건의 가해자였던 와일드스트랜드의 후손인 존 와일드스트랜드는 린치 피해자였던 커스버트 피스의 후손인 코윈 피스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유진 와일드스트랜드(존의 할아버지)는 린치의 피해자인 무슴의 장인이 된다. 따라서 코윈 피스의 핏속엔 린치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피도 있는 셈이다. 무슴의 경우도 가해자의 피를 가진 여자와 부부가 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어드릭의 이런 재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정의를 “성취할 수 없는”(Kim 2019:239)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혈연관계가 복잡하게 뒤섞인 후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의 외상적인 흔적들 자체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드릭은 이 뒤얽힌 계보 속에서 모두가 과거에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왔다는 외상적 역사를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를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기억의 윤리는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 즉 회복적 정의에 꼭 필요한 것이다.

무슴, 에블리나 뿐 아니라 백인인 니브도 기억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태의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어드릭은 기억의 윤리를 비단 원주민에 한정시켜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둘기 재앙』에서의 어드릭의 메시지는 외상적 역사에 대한 기억이란 백인/원주민의 경계를 넘어서 아픔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해야 하는 윤리적 행동양식이란 점이다. 더 나아가, 그녀도 『비둘기 재앙』을 창작하는 행위 속에서 역사적 정의의 회복을 도모하는 기억의 윤리를 보여준다. 배키너(2015:147는 역사적인 불의를 문제 삼는 문학과 예술도 역사적 정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언급을 염두에 두면, 이 소설은 분명 역사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문학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비둘기 재앙』에서 제시된 정의의 문제를 고려해보면, 정의란 단일하지 않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이다. 국내 독자에게도 친숙해진 마이클 샌델(2014:325)의 『정의란 무엇인가』만 보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 칸트,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사유와 입장들이 그동안 정립됐다. 그는 자신의 저서 후반부에서 롤스의 사회정의론을 포함해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입장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의무와 공동체의 연대의무처럼 세상에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다층적인 정의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조정하며, 추구하는 지혜를 촉구한다. 이 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기억의 윤리에 기초한 역사적 정의는 바로 샌델이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어드릭의 인터뷰를 상기하면서, 『비둘기 재앙』이 그런 불완전한 정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움직임으로 독자의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는 점에서 정의의 성취 문제에 그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회의적이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된다. 어드릭의 『라운드 하우스』가 아니시나아베 전통의 위인디구 정의와 현대 부족의 사법적 정의 간 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비둘기 재앙』은 아니시나아베 전통의 또 다른 정의인 미노-비마디지원 사유가 회복적 정의(조정법정이라는 현대 부족의 사법적 정의)와 연결된 고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역사적 차원의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어드릭은 정의의 추구란 원주민, 백인, 혼혈 할 것 없이 모두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비둘기 재앙』의 어드릭은 정의에 대해 결코 단순하지 않고 세심한 접근을 통해서 플루토, 즉 죽음과 저승을 환기하는 그곳으로 독자를 불러들여 정의 대신 무법적 폭력이 난무했던 식민주의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하고 북미원주민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도모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마이클 샌델, 김명철 옮김(2014),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 양석원(2018), 『욕망의 윤리: 라캉 정신분석과 예술, 정치, 철학』, 한길사.
- Bakiner, Onur(2015), “Promoting Historical Justice through Truth Commissions,” *Historical Justice and Memory*, ed. by Klaus Neumann and Janna Thompson, Madison: U of Wisconsin P, 148-165.
- Blustein, Jeffrey(2015), “How the Past Matters: On the Foundations of an Ethics of Remembrance,” *Historical Justice and Memory*, ed. by Klaus Neumann and Janna Thompson, Madison: U of Wisconsin P, 74-92.
- Debassige, Brent(2010), “Re-conceptualizing Anishinaabe Mino-Bimaadiziwin (the Good Life) as Research Methodology: A Spirit-centered Way in Anishinaabe Research,” *Canadian Journal of Native Education* 33(1), 11-28.
- Erdrich, Louise(2008), *The Plague of Doves*, New York and London: Harper Perennial.
- Fletcher, Matthew L. M(2017), “Anishinaabe Law and *The Round House*,” *Albany Government Law Review* 10, 88-111.
- Kim, Hyung-Hee(2019), “Violence and Justice in Louise Erdrich’s *The Plague of Doves* and *The Round House*,” 『현대영미소설』 26(3), 225-244.
- Kurup, Seema(2015), *Understanding Louise Erdrich*,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 Lacan, Jacques(1972), “Seminar on the ‘Purloined Letter’,” *Yale French Studies* 48, 38-72.
- LaDuke, Winona(1999), *All Our Relations: Native Struggles for Land*

*and Life*, Cambridge: South End Press.

McGregor, Deborah(2018), “Mino-Mnaamodzawin: Achieving Indigenous Environmental Justice in Canada,” *Environment and Society: Advances in Research* 9, 7-24.

Pfeifer, Michael J(2011), *The Roots of Rough Justice: Origins of American Lynching*, Urbana: U of Illinois P.

Rheault, D’Arcy(1999), *Anishinaabe Mino-Bimaadiziwin: The Way of a Good Life*, Peterborough: Debwewin P.

Thompson, Janna(2015), “Reparative Claims and Theories of Justice,” *Historical Justice and Memory*, ed. by Klaus Neumann and Janna Thompson, Madison: U of Wisconsin P, 45-62.

Walker, Margaret Urban(2015), “How Can Truth Telling Count as Reparations?” *Historical Justice and Memory*, ed. by Klaus Neumann and Janna Thompson, Madison: U of Wisconsin P, 130-145.

이재영(2014), 「‘회복적 정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http://www.redian.org/archive/74037> (검색일: 2021.3.30.)

Baenen, Jeff(2008), “A Dark Event Inspires Erdrich’s New Novel”  
<https://www.fosters.com/story/lifestyle/2008/06/04/a-dark-event-in-spires-erdrich/52392209007/> (검색일: 2021.4.10.)

Goodman, Amy(2008), “Native American Writer and Independent Bookseller Louise Erdrich”  
[https://www.democracynow.org/2008/6/6/native\\_american\\_writer\\_and\\_independent\\_book](https://www.democracynow.org/2008/6/6/native_american_writer_and_independent_book) (검색일: 2021.5.10.)

Hansen, Liane(2008), “‘Plague of Doves’, Multigenerational Murder Mystery”  
<https://www.npr.org/2008/05/04/90167624/plague-of-doves-multigenerational-murder-mystery> (검색일: 2021.5.15.)

Hilleary, Cecily(2018), “Remembering Native American Lynching Victims”

<https://www.voanews.com/a/remembering-native-american-lynching-victims/4362911.html> (검색일: 2021.6.3.)

Moyers, Bill(2010), “Louise Erdrich on Drawing Inspiration from Native American Heritage”

<https://billmoyers.com/content/writer-louise-erdrich/> (검색일: 2021.7.1.)

❖ ABSTRACT

A Tribal Justice and Historical Justice in Erdrich's  
*The Plague of Doves*:  
Focusing on Their Reparative Characters

Jeong, Jin Man  
Yeungnam University

This essay explores how Louise Erdrich's *The Plague of Doves* deals with the issue of justice concerning the colonial history of the Ojibwes and what its significance is. This study argues that the novel provides 'reparative justice' as a leitmotif at an historical level as well as at a judicial level. First, this study explores how Anishinaabe tribal justice is carried out in Ojibwe judge Coutts' peacemaking court, using the Anishinaabe traditional concept of *mino-bimaadiziwin* (the Good Life) as its foundation. Second, this study elucidates how the novel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membering in order to disclose long-misconceived historical truth and to accuse whites of "mob violence" against Native Americans. The novel's multifaceted and intricate approach to reparative justice anticipates the Native Americans regaining their own sovereignty, healing, and persistent survival.

Key Words : Erdrich, *The Plague of Doves*, reparative justice,  
*mino-bimaadiziwin*, historical justice

- 논문투고일 : 2022. 08. 10
- 심사완료일 : 2022. 09. 30
- 게재확정일 : 2022. 10. 04